

6. <보기>로부터 '리더가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이끌어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뚝배기의 특성
 - 뜨거운 가마에서 여러 차례 구워져서 단단하다.
 - 오랜 시간을 사용해도 제 기능을 유지한다.
 - 미세한 구멍이 많아 공기가 안팎으로 잘 통한다.
- 뚝배기로 요리를 할 때의 장점
 - 쉰 열을 부드럽게 바꾸어 재료가 타지 않게 해 재료 각각의 맛을 살린다.
 - 다양한 재료가 어우러지게 해 좋은 맛을 내게 한다.



※ 착안점 : 뚝배기 리더

- ① 현실과 일정한 거리를 두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 ② 오랫동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시련과 역경을 극복해 내며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 ④ 구성원 간의 조화를 도모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 ⑤ 구성원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7. 동아리의 신입 회원 모집을 위한 홍보물을 작성하고자 한다.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것은?

<보 기>

- 동아리 활동의 의의를 제시한다.
- 비유와 대조의 기법을 활용한다.

- ① [과학반]
책만 읽으며 과학을 공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과학자를 꿈꾸며 실험을 통해 원리를 탐구합니다.
- ② [토론반]
토론을 할 줄 몰라 상대방을 설득하기 힘드세요? 여기는 자신의 주장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곳입니다.
- ③ [창작반]
작가가 되고 싶어 하는 당신의 꿈을 키워 줍니다. 이곳에서 당신의 숨겨진 재능을 활짝 꽃피워 보세요!
- ④ [봉사반]
이웃을 외면하는 당신! 당신의 삶은 황무지와 같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당신! 당신의 삶은 보람으로 가득 찹니다.
- ⑤ [역사반]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알기 위해 역사를 연구합니다.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뿌리를 찾아보실래요?

8. <보기>는 지역 신문에 '한옥 마을 조성'에 관한 글을 투고하기 위해 쓴 개요이다. 개요를 수정 및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I. 서론 : 한옥 마을 조성의 필요성.....㉠
- 한옥 마을은 전통 문화 체험의 장이 됨.

II. 본론

1. 한옥 마을 조성이 어려운 이유
가. 한옥 마을 조성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복잡하며 한옥 관리 비용이 많이 듦.....㉡
나. 한옥의 유지 및 보수에 많은 관리 비용이 소요됨.
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확보하여 지원함.....㉢

2. 한옥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
가. 한옥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함.
나.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함.㉣

III. 결론 :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개발 자제 촉구㉤

- ① ㉠에는 '한옥 마을의 조성을 둘러싼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추가하여 필요성 측면을 강조해야겠어.
- ② ㉡은 'II-1-나'와 중복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조성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복잡함'으로 고쳐야겠어.
- ③ ㉢은 관리 비용 측면의 방안에 해당하므로 'II-2'의 하위 항목으로 옮겨야겠어.
- ④ ㉣은 상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므로 삭제해야겠어.
- ⑤ ㉤은 글의 흐름에 맞지 않으므로 '한옥 마을 조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및 지원 촉구'로 바꿔야겠어.

9. <보기>의 예를 바탕으로 '멀다'와 '아득하다'의 쓰임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ㄱ. {먼 / 아득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 살아 왔다.
 ㄴ. 한바탕 싸운 뒤에 둘의 관계가 {멀어졌다 / *아득해졌다}.
 ㄷ. 네가 내 성적을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다 / *아득하다}.
 ㄹ. 직장을 잃으니 살아갈 길이 {*멀기만 / 아득하기만} 하다.
 ㅁ. 꼬박 삼 일을 굶었더니 정신이 {*멀어졌다 / 아득해졌다}.

*는 부자연스러운 어휘.

- ① ㄱ에서 '멀다'와 '아득하다'는 모두 시간적 거리감을 나타낸다.
- ② ㄴ에서 '멀다'는 물리적으로 공간이 떨어져 있음을 나타낸다.
- ③ ㄷ에서 '멀다'는 어떤 기준점에 모자람을 나타낸다.
- ④ ㄹ에서 '아득하다'는 어찌할지 모르는 막막함을 나타낸다.
- ⑤ ㅁ에서 '아득하다'는 의식이 흐려짐을 나타낸다.

10.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쓰기 위해 <보기>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토대로 이끌어 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통계 자료

1. 전체 영유아 보육 시설 현황 (단위:개)

2. 설립 주체별 영유아 보육 시설 비율 (단위:%)

	민간 시설	국공립 시설	사회복지법인시설
2007년	89.6	5.7	4.7
2008년	90.2	5.4	4.4
2009년	90.5	5.4	4.1
2010년	90.8	5.3	3.9

(나) 신문 기사

2010년 말 기준 전국 영유아 보육 시설 정원에 27만 6,898명의 여유가 있다. 그런데 많은 지역에서 부모들이 아이를 맡길 보육 시설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에 따라 보육 시설이 편중되어 있으며, 특히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이나 사회복지법인 보육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부모들은 비싼 민간 보육 시설에 아이들을 맡길 수밖에 없어 보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일보 -

(다) 인터뷰 내용

- "일본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감독을 받는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보육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보육 시설이 우리보다 10배나 많으며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 한○○(○○대학교 교수) -
- "보육 시설 안전사고가 매년 3,500여 건이나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보육 시설은 안전한지 늘 염려가 됩니다."

- 김○○(학부모) -

- ① (가) - 1과 (나)를 활용하여, 전체적으로 보육 시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를 맡길 보육 시설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 ② (가) - 2와 (다)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의 보육 시설 현황을 대비하여 민간 보육 시설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부각한다.
- ③ (나)와 (다)를 활용하여,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보육 시설의 교육 프로그램의 질 저하가 보육 시설에 대한 부모들의 불신을 키우는 주요 원인임을 밝힌다.
- ④ (가) - 1과 (다)를 활용하여, 보육 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육 시설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관리와 감독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 ⑤ (가) - 2와 (나)를 활용하여, 부모들의 보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보육 시설의 수를 크게 늘려야 한다고 제안한다.

11. 다음은 판소리를 소개하기 위한 글의 초고이다. 고쳐 쓰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창(唱)', '아니리', '발림'은 흔히 판소리의 3요소로 불린다. ㉠ 창을 소리꾼이 가락에 맞추어 부르는 노랫소리이며, 아니리는 창을 하는 중간 중간에 소리꾼이 가락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하듯 엮어 나가는 사설을 일컫는다. ㉡ 그러나 발림은 소리의 극적인 전개를 돕기 위하여 소리꾼이 몸짓이나 손짓으로 하는 동작을 의미한다. ㉢ 알고 보면 국악은 따분한 음악이 아니다.

고수(鼓手)는 북으로 장단을 맞추어 줄 뿐만 아니라 '얼쭈', '종구나'와 같은 추임새를 넣어 흥을 돋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판소리 공연에는 소리꾼뿐만 아니라 북을 치는 사람인 고수가 있어야 한다. 구경꾼도 소리꾼의 소리를 들으며 얻는 감동을 추임새로 표현한다. 추임새를 함으로써 구경꾼도 판소리 공연에 동참하게 된다. 이처럼 판소리는 소리꾼, 고수, 구경꾼이 한데 어울려 ㉤ 별리는 놀이판이다.

- ① ㉠은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어색하므로 '창은'으로 고쳐야겠어.
- ② ㉡은 문장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따라서'로 바꿔야겠어.
- ③ ㉢은 문단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해야겠어.
- ④ ㉣은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앞 문장과 위치를 바꿔야겠어.
- ⑤ ㉤은 어휘가 잘못 사용되었으므로 '별이는'으로 바꿔야겠어.

12. <보기 1>을 참조하여 <보기 2>의 ㉠~㉤을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인칭대명사는 지시 대상이 화자인지, 청자인지, 화자와 청자 이외의 제삼자인지에 따라 각각 일인칭, 이인칭, 삼인칭 대명사로 나뉜다. 이 중에 삼인칭 대명사에는 미지칭(未知稱) 대명사, 부정칭(不定稱) 대명사, 재귀대명사가 포함된다. 미지칭 대명사는 가리킴을 받는 사람의 이름이나 신분을 모를 때, 부정칭 대명사는 정해지지 아니한 사람을 지칭할 때, 재귀대명사는 앞에 나온 삼인칭 주어를 지칭할 때 쓰인다.

<보기 2>

초인종이 울린다. "계세요?"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아 들: ㉠ 누가 왔는지 ㉡ 제가 나가 볼게요. (현관으로 나가며) ㉢ 누구세요? (문을 열어 상대방을 확인한다.)
우체부: 택배 왔습니다.

아 들: (물건을 건네받아 확인하고) 할머니께서 ㉣ 당신이 손수 말리신 꽃감을 보내셨네요. 아버지, 꽃감 좀 맛보실래요?
아버지: ㉤ 네가 먼저 먹으렴. 난 이따가 먹을란다.

- ① ㉠: 부정칭 대명사
- ② ㉡: 일인칭 대명사
- ③ ㉢: 미지칭 대명사
- ④ ㉣: 재귀대명사
- ⑤ ㉤: 이인칭 대명사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집 떠나가 배운 노래를
집 찾아오는 밤
논둑 길에서 불렀노라.

나가서도 고달프고
돌아와서도 고달팠노라.
열네 살부터 나가서 고달팠노라.

㉠ 나가서 얻어 온 이야기를

㉡ 답이 울도록,
아버지께 이르노니—

기름불은 깜박이며 듣고,
어머니는 눈에 눈물이 고이신 대로 듣고
이치대던* 어린 누이 안긴 대로 잠들며 듣고
윗방 문설주에는 그 사람이 서서 듣고,

큰 독 안에 실린 슬픈 물같이
㉢ 속살대는 이 시골 밤은
찾아온 동네사람들처럼 돌아서서 듣고,

—그러나 이것이 모두 다
㉣ 그 예전부터 어떤 시원찮은 사람들이
끝짓지 못하고 그대로 간 이야기이니

이 집 문고리나, 지붕이나,
늪으신 아버지의 착하디 착한 수염이나,
활처럼 휘어다 붙인 밤하늘이나,

이것이 모두 다
㉤ 그 예전부터 전하는 이야기 구절일리라.

* 이치대던: 성가시게 칭얼대던.

— 정지용, 「옛 이야기 구절」 —

(나)

아베요 아베요
내 눈이 티눈인 걸
아베도 알지려요.

㉥ 등잔불도 없는 제사상에
축문*이 당한기요.

눌러 눌러
소금에 밥이나마 많이 묵고 가이소.

윤사월 보리고개
아베도 알지려요.

간고등어 한 손이든

아베 소원 풀어드리련만

저승길 배고플라요

소금에 밥이나마 많이 묵고 묵고 가이소.

[A]

여보게 만술(萬術) 아버

니 정성이 엄첩다*.

이승 저승 다 다녀도

인정보다 귀한 것 있을라꼬.

망령(亡靈)도 응감(應感)*하여, 되돌아가는 저승길에
니 정성 느껴느껴 세상에는 굶은 밤이슬이 온다.

* 축문: 제사 때에 읽어 신명(神明)께 고하는 글.

* 엄첩다: '대견하다'의 경상도 방언.

* 응감: 마음에 응하여 느낌.

— 박목월, 「만술(萬術) 아버의 축문(祝文)」 —

(다)

여보소 저 각시님 설운 말씀 그만 하오

말씀을 드러하니 설운 줄 다 모르겠네

㉦ 인연인들 한 가지며 이별인들 같을손가

광한전(廣寒殿) 백옥경(白玉京)*에 입을 뵈셔 즐기더니

니릿*를 하였거니 재양인들 없을손가

해 다 저문 날에 가는 것을 설워 마소

엇더타 이 내 몸이 견줄 데 전혀 없네

광한전 어디메오 백옥경 내 알던가

원앙침 비취금에 뵈셔 본 적 전혀 없네

내 얼굴 이 거동이 무엇으로 입을 사랑할꼬

길쌈을 모르거니 가무야 더 이룰까

엇언지 임 향한 한 조각 이 마음을

하늘이 심기시고* 성현이 가르쳐서

㉧ 정학(鼎鑊)*이 앞에 있고 부월(斧鉞)*이 뒤에 있어

일백 번 죽고 죽어 뼈가 가루 된 후에도

임 향한 이 마음이 변할손가

나도 일을 가져 남에 없는 것만 얻어

부용화(芙蓉花) 옷을 짓고 목란(木蘭)으로 주머니 만들어

하늘께 맹세하여 임 섬기랴 원이러니

[B]

조물(造物)이 시기(猜忌)하는가 귀신이 훼방하는가

내 팔자 그만하니 사람을 원망할까

* 광한전 백옥경: 옥황상제가 산다고 하는 곳.

* 니릿: 아양.

* 심기시고: 주시고.

* 정학: 죄인을 삶아 죽이는 큰 솥.

* 부월: 작은 도끼와 큰 도끼.

— 김춘택, 「별사미인곡(別思美人曲)」 —

1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분위기가 변화하는 양상을 공간의 이동에 따라 표현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대상을 원망하는 마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시상을 전개하면서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고 있다.
- ④ (가)~(다) 모두 화자의 현재 처지를 자연물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다) 모두 대립적 시어를 활용하여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1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타인의 생각이나 정서를 공유하는 것을 ‘공감(共感)’이라고 하고, 어떤 느낌을 받아 마음이 따라 움직이는 것을 ‘감응(感應)’이라고 한다. 이러한 공감과 감응은 슬픔이나 고통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게 되며, 이를 통해 사람 사이에서는 물론 사물과 자연물 그리고 다른 세계에 있는 존재와의 사이에서도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가)와 (나)는 시적 표현과 내용을 통해 이러한 공감과 감응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의 ‘눈물이 고이신 대로 듣고’를 통해 화자와 ‘어머니’ 사이에 공감이라는 정서적 공유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가)에서 ‘기름불’이 화자의 이야기를 ‘깜박이며 듣고’ 있다는 것은 화자의 고달픔에 감응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가)에서 ‘문고리’, ‘지붕’, ‘밤하늘’을 함께 제시한 것은 사물과 자연물이 서로 감응하기를 기원하는 화자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④ (나)에서 ‘만술 아버지’가 ‘아베도 알지러요’를 반복하는 것은 자신의 처지를 ‘아베’가 공감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 ⑤ (나)의 ‘느껴느껴’로 보아 ‘굵은 밤이슬’은 다른 세계에 있는 존재인 ‘망령’이 감응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15.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고 있다.
- ② ㉡: 배경을 의인화하여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③ ㉢: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④ ㉣: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 점층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16. <보기>를 참조하여 (가)의 ㉠~㉣를 설명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는 시상이 전개되면서 ‘이야기’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야기는 하나의 시·공간 내에 퍼지며 공시적으로 확대되기도 하지만, 과거의 이야기에 통합되면서 통시적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공시적 확대	㉠의 청자는 ‘아버지’에서 ‘어머니’, ‘누이’, ‘그 사람’이라는 가족들로 확대된다. ①
	㉠은 ‘찾아온 동네사람들’을 통해 화자의 이야기에서 동네의 이야기로 확대된다. ②
통시적 확대	㉠은 ㉡와 ㉢의 ‘그 예전부터’ 전해 온 이야기의 일부로 통합된다. ③
	㉠의 화자는 ㉡의 ‘어떤 시원찮은 사람들’의 일부로 통합된다. ④
	㉠의 청자는 ㉢의 청자인 ‘늙으신 아버지’의 일부로 통합된다. ⑤

17.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B] 모두 자신이 하고픈 것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A]와 [B] 모두 현 상황의 원인을 운명으로 돌리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③ [A]에서는 화자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고, [B]에서는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 ④ [B]와 달리 [A]는 화자의 과거 처지와 현재 처지가 대비되고 있다.
- ⑤ [B]와 달리 [A]는 부정적 현실에 절망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8. <보기>를 읽고 (다)를 감상해 보았다.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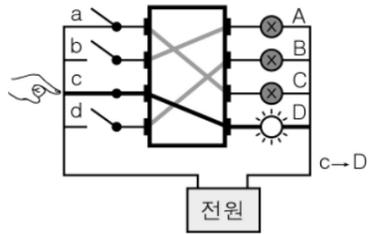
(다)는 정철의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에 영향을 받아 창작된 「별사미인곡」의 첫 부분이다. 정철이 높은 관직에 있다가 임금과 떨어져 있을 때 두 작품을 창작했다면, 김춘택은 평생 벼슬을 하지 못하다가 당쟁에 휘말려 유배당했을 때 「별사미인곡」을 지었다. 정철의 두 작품에는 임과 이별한 여성 화자가 등장하는데, 김춘택은 이 화자를 끌어와 ‘저 각시’라 칭하며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고 있다.

- ① ‘광한전 백옥경에 입을 뿜서 즐기더니’는 ‘저 각시’가 임의 곁에 살며 임의 사랑을 받았던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군.
- ② ‘엇더타 이 내 몸이 견줄 데 전혀 없네’로 보아 화자는 ‘저 각시’보다 자신의 상황을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군.
- ③ ‘원앙침 비취금에 뿜서 본 적 전혀 없네’는 ‘저 각시’와 달리 임의 곁에 있어 보지 못한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는 표현이라 볼 수 있군.
- ④ ‘길쌈을 모르거니 가무야 더 이룰까’로 보아 화자가 임과 함께했던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일백 번 죽고 죽어 뼈가 가루 된 후에도 / 임 향한 이 마음이 변할손가’는 임과 떨어져 있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화자의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군.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암호를 만드는 방식에는 크게 전치(轉置) 방식과 환자(換字) 방식이 있다. 전치 방식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평문의 철자 위치를 바꾸어 암호문을 만드는 방식이고, 환자 방식은 평문 철자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다른 문자로 바꾸어 암호문을 만드는 방식이다. 더 복잡하게 하고자 할 때는 전치 방식과 환자 방식을 함께 적용한 혼합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평문을 암호문으로 만드는 암호화의 규칙을 ‘알고리즘(algorithm)’이라 하고 역으로 암호문을 평문으로 푸는 해독의 규칙을 ‘키(key)’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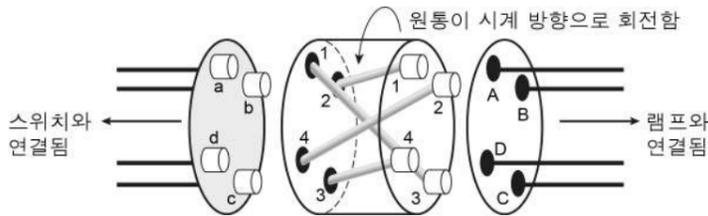
암호의 원리는 현대 문명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암호 장치들로 구현되었다. 특히 전신(電信)에 의한 송·수신이 가능하게 되면서 전기 암호 장치가 개발되었다.



[그림 1] 전기 암호 장치의 구조

[그림 1]에서 스위치 a, b, c, d와 연결된 램프 A, B, C, D로 구성된 이 장치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키보드에서 평문 철자를 입력했을 때 불이 켜지는 램프가 암호 철자를 나타낸다. [그림 1]에서처럼 송신자가 평문 철자 c를 입력했을 때 c에 연결된 램프 D가 켜지고 이 암호 철자 D를 전신으로 받은 수신자는 암호 철자인 D를 눌러 D에 연결된 원래의 평문 철자 c를 얻게 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전기 암호 장치는 회로 구조가 파악되면 쉽게 암호가 노출될 수 있고, 그런 경우 다시 회로 구조를 바꿔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전시(戰時)와 같이 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회전하는 원통 속에 전기 회로를 넣은 ‘에니그마’가 개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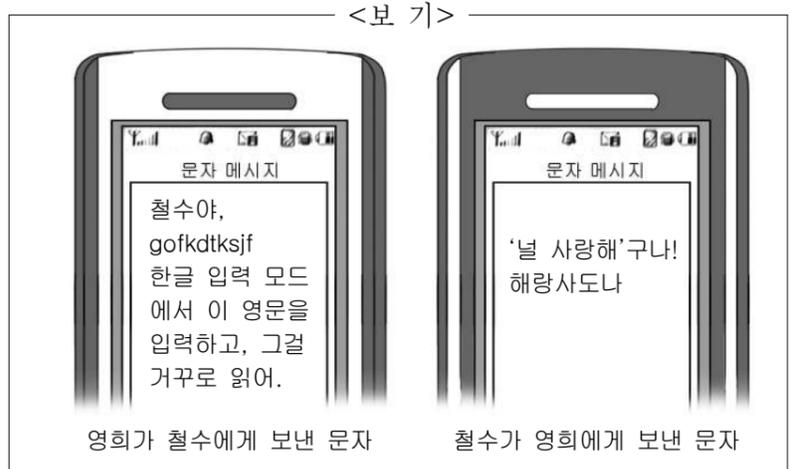
[그림 2] 에니그마의 구조

에니그마는 원통이 회전함에 따라 스위치와 램프의 연결 상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회로 구조를 조작하지 않고도 평문 철자와 암호 철자의 대응 규칙을 쉽게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원통이 회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문 ‘b’를 입력하면 [그림 2]의 회로 구조를 거쳐 암호문 ‘A’로 나타나지만(b-2-1-A), 원통이 시계 방향으로 1/4바퀴 돌아간 경우에는 같은 ‘b’를 입력하더라도 원통 속의 회로가 다른 단자와 연결되면서 암호문 ‘C’로 나타나게 된다(b-3-4-C). 따라서 암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통 바퀴 내부의 회로 구조뿐만 아니라 한 글자를 입력할 때마다 원통이 언제, 얼마나 회전하는지 등 원통의 회전 규칙도 함께 알아야 한다.

19. ‘전기 암호 장치’와 ‘에니그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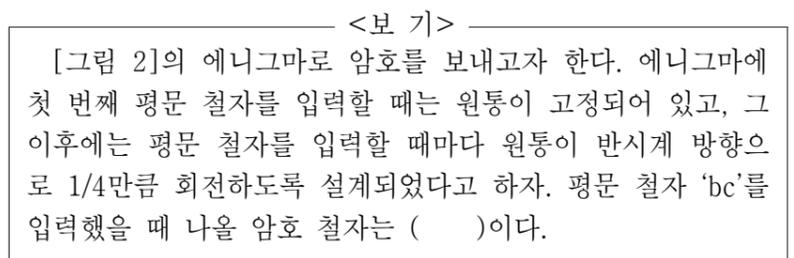
- ① 전기 암호 장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에니그마를 개발했다.
- ② 전기 암호 장치와 에니그마는 전기 회로를 통해 환자 방식을 구현했다.
- ③ 전기 암호 장치와 에니그마의 스위치는 평문 철자, 램프는 암호 철자를 나타낸다.
- ④ 에니그마는 전기 암호 장치와 같이 회로 구조만 알아도 암호를 해독할 수 있다.
- ⑤ 전기 암호 장치는 에니그마와 달리 대응 규칙을 쉽게 바꾸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20. 위 글을 통해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널 사랑해’는 영희가 전하고 싶은 평문이군.
- ② ‘널 사랑해’를 ‘해랑사널’로 바꾼 것은 전치 방식이군.
- ③ ‘해랑사널’을 ‘gofkdtksjf’로 바꾼 것은 환자 방식이군.
- ④ ‘한글 입력 모드에서 이 영문을 입력하고, 그걸 거꾸로 읽어’는 알고리즘에 해당하는군.
- ⑤ 철수가 보낸 ‘해랑사도나’는 전치 방식으로 보낸 것이군.

21.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암호 철자’는?



- ① AB ② AC ③ BC ④ DA ⑤ DB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관객은 영화를 보면서 영상의 흐름을 어떻게 지각하는 것일까? 그토록 빠르게 변화하는 앵글, 인물, 공간, 시간 등을 어떻게 별 어려움 없이 흥미진진하게 따라가는 것일까? 흔히 영화의 수용에 대해 설명할 때 관객의 눈과 카메라의 시선 사이에 일어나는 동일시 과정을 내세운다. 그러나 동일시 이론은 어떠한 조건을 기반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동일시가 일어나는지, 영상의 흐름을 지각할 때 일어나는 동일시의 고유한 방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의미 있는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칸트의 ‘무관심성’에 대한 논의에서 이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칸트는 미적 경험의 주체가 ‘객체가 존재한다’는 사

실성 자체로부터 거리를 둔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영화관에서 관객은 영상의 존재 자체에 대해 ‘무관심한’ 상태에 있다. 영상의 흐름을 냉정하고 분석적인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영상의 흐름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듯이, 자신이 미적 경험의 유희에 초대된 듯이 공감하며 체험하고 있다. 미적 거리 두기와 공감적 참여의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다. 주체와 객체가 엄격하게 분리되거나 완전히 겹쳐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통상적인 동일시 이론과 달리, 칸트는 미적 지각을 지각 주체와 지각 대상 사이의 분리와 융합의 긴장감 넘치는 ‘중간 상태’로 본 것이다. 이러한 유희적 동일시 이론은 영화만이 아니라 다른 예술의 수용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적·유희적 동일시만으로 영화의 수용에서 나타나는 동적인 체험 양상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관객이 영상의 흐름을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이유는, 영화 속의 공간이 단순한 장소로서의 공간이라기보다는 ‘방향 공간’이기 때문이다. 카메라의 다양한 앵글 선택과 움직임, 자유로운 시점 선택이 방향 공간적 표현을 용이하게 해 준다. 두 사람의 대화 장면을 보여 주는 장면을 생각해 보자. 관객은 단지 대화에 참여한 두 사람의 존재와 위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시선 자체가 지닌 방향성의 암시, 즉 두 사람의 얼굴과 상반신이 서로를 향하고 있는 방향 공간적 상황을 함께 지각하고 있는 것이다.

영화의 매체적 강점은 방향 공간적 표현이라는 데에만 그치지 않는다. 영상의 흐름에 대한 지각은 언제나 생생한 느낌을 동반한다. 관객은 영화 속 공간과 인물의 독특한 감정에서 비롯된 분위기의 힘을 늘 느끼고 있다. 따라서 영화 속 공간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분위기의 힘을 느끼도록 해 주는 ‘감정 공간’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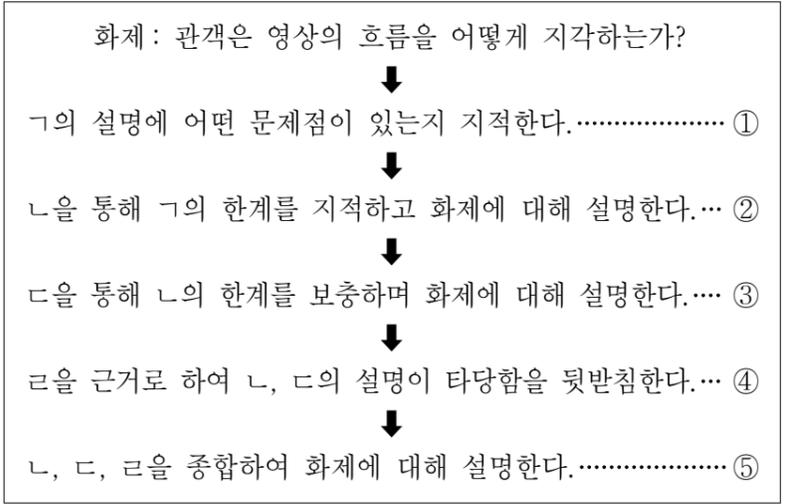
이렇게 볼 때 영화 관객은 자신의 눈을 단순히 카메라의 시선과 직접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다. 관객은 영화를 보면서 영화 속 공간, 운동의 양상 등을 유희적으로 동일시하며, 장소 공간이나 방향 공간 등 ㉠ 다양한 공간의 층들을 동시에 인지할 뿐만 아니라 감정 공간에서 나오는 독특한 분위기의 힘을 감지하고, 이를 통해 영화 속의 공간과 공감하며 소통하고 있는 것이다.

22.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영상의 흐름을 분석적으로 지각하지 않아도 영화의 수용이 가능하다.
- ② 칸트의 ‘중간 상태’는 다양한 예술 형식의 수용에서 경험할 수 있다.
- ③ 유희적 동일시는 미적 거리 두기와 공감적 참여의 상태를 통해 가능하다.
- ④ 동일시 이론은 관객의 눈이 카메라 시선과 동일시되어 영상의 흐름을 지각한다고 설명한다.
- ⑤ 유희적 동일시 이론은 미적 주체가 객체와의 융합을 통해 미적 유희를 경험한다고 설명한다.

23. <보기>는 글쓴이가 위 글을 쓰기 위해 생각한 단상들이다. 이를 바탕으로 위 글의 논지 흐름을 정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관객은 자신의 눈과 카메라의 시선을 동일시한다.
 - ㄴ. 관객은 자신을 영상의 흐름과 미적·유희적으로 동일시한다.
 - ㄷ. 영화 속 공간은 방향 공간이다.
 - ㄹ. 영화 속 공간은 감정 공간이다.



24. 다음은 영화의 한 장면이다. 이에 대한 관객의 반응 중, ㉠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은?



- ① 전쟁터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서 장면 속에 깊이 몰입할 수 있었어.
- ② 카메라의 다양한 앵글이 영상의 흐름을 역동적으로 만들어 전쟁터의 긴박함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었어.
- ③ 한밤의 고요한 참호를 배경으로 병사와 상관 사이의 대화 장면을 배치하여 전쟁의 참혹함을 잘 드러내고 있었어.
- ④ 천천히 흘러가는 영상은 인물들의 내면에 초점이 맞춰진 듯했고, 전쟁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들의 고뇌에 공감하게 되었어.
- ⑤ 참호를 배경으로 인물들의 시선을 교차시키는 화면 전환에서 공간적 생동감이 느껴졌고, 힘겨워하는 병사를 위로하는 상관의 모습에서 눈물이 나올 뻔했어.

[25~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인 근대 국어에서 가장 현저한 음운 변화의 하나는 구개음화이다. 구개음화는 현재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ㄷ, ㅌ’이 ‘ㅈ, ㅊ’이 되는 현상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원래 구개음화란 구개음이 아닌 자음이 어떤 음운의 영향을 받아 구개음이 되는 현상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따라서 국어사에서 구개음화는 모음 ‘ㅣ’나 반모음 ‘ㅣ’ 앞에서 ‘ㄷ, ㅌ, ㅍ’이나 ‘ㄱ, ㅋ, ㆁ’이 구개음인 ‘ㅈ, ㅊ, ㆁ’이 되고, 그 밖의 몇몇 자음이 같은 조건에서 구개음이 되는 현상을 모두 포괄한다.

구개음화는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에 남부에서부터 시작하여 북상한 것으로 추정된다. 1824년에 나온 유희의 『언문지』에는 당시 사람들이 ‘다더’나 ‘타터’를 ‘자져’나 ‘차쳐’와 동일하게 발음하고 관서 지방 사람들만이 ‘턴(天)’과 ‘천(千)’, ‘디(地)’와 ‘지(至)’를 구분하여 발음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를 통해 당시 평안 방언을 제외한 여러 방언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구개음화가 상당히 진척되면서 ‘디, 다, 더, 도, 듀’와 ‘티, 타, 터, 토, 튜’ 등과 같은 결합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구개음화가 진척된 이후에 ‘디, 티’가 ‘디, 티’로 변하면서 이 형태가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디, 티’가 구개음화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다.

근대 국어에서 나타난 ‘ㄷ, ㅌ’의 구개음화는 ‘ㅈ, ㅊ’이 구개음으로 변한 것을 전제로 한다. 중세 국어에서 ‘ㅈ, ㅊ’은 원래 치음이었는데, 이것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 앞에서 구개음으로 변한 뒤에야 ‘ㄷ, ㅌ’ 등의 구개음화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ㅈ, ㅊ’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 앞에서만 구개음으로 변하다가 ‘ㅈ, ㅊ’을 모두 구개음으로 발음하게 되면서 이제까지 존재해 왔던 ‘자, 저, 조, 주’와 ‘차, 쳐, 초, 주’의 변별적 차이가 사라진다. 이 때문에 19세기 문헌에서는 ‘자’와 ‘차’, ‘저’와 ‘쳐’ 등이 구분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게 된다.

구개음화는 이 밖에 ‘ㅣ’나 반모음 ‘ㅣ’ 앞에 오는 ‘ㅅ’이나 ‘ㄴ’ 등에서도 나타났다. 어두에서 모음 ‘ㅣ’나 반모음 ‘ㅣ’에 선행한 ‘ㄴ’의 탈락은 구개음화된 ‘ㄴ’을 어두에서 발음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ㄴ’의 탈락 현상이 나타난 시기는 대략 18세기 후반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의 문헌을 보면 ‘넘금’이 ‘임금’으로 ‘니르다’가 ㉠ ‘이르다’로 표기된 예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19세기에 오면 이러한 어두에서의 ‘ㄴ’ 탈락이 일반화된다.

근대 국어에서 구개음화는 ‘ㄱ’과 ‘ㅇ’이 합쳐진 ‘ㄱ-ㅇ’에서와 같이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기도 했지만,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도 일반적으로 일어났던 현상이었으며, 이로 인해 ‘티다’가 ㉡ ‘치다’로 변한 것과 같이 그 형태가 바뀌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단일 형태소 내부에서의 구개음화는 공식적으로 파악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구개음화는 주로 형태소 경계에서만 일어나는 음운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 반모음 ‘ㅣ’: ‘ㅏ, ㅑ, ㅓ, ㅕ’와 결합하여 이중 모음 ‘ㅑ, ㅓ, ㅕ, ㅗ’를 만드는 소리.

25. 위 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국어의 구개음화는 어떤 음운 조건 하에서 일어나는가?
- ② 근대 국어에서 ‘ㅈ, ㅊ’의 구개음화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 ③ 근대 국어에서 구개음화가 나타나는 지역적 분포는 어떠한가?
- ④ ‘ㅈ, ㅊ’의 구개음화와 ‘ㄷ, ㅌ’의 구개음화 중 어느 것이 먼저 일어났는가?
- ⑤ 현재 ‘ㄷ, ㅌ’의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디, 티’가 남아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26.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과 ㉡에는 모두 구개음이 아닌 자음이 구개음화되어 나타나 있다.
- ② ㉠과 ㉡은 모두 모음 ‘ㅣ’의 영향으로 인해 구개음화된 자음이 탈락되었다.
- ③ ㉠과 ㉡은 모두 근대 국어 시기에 구개음화의 과정을 거쳐 그 형태가 바뀌었다.
- ④ ㉠은 형태소 경계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났고, ㉡은 단일 형태소 내부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났다.
- ⑤ ㉠은 같은 조건에 있는 모든 음운에서 구개음화가 일반적으로 일어난 사례이고, ㉡은 일부의 음운에서만 특수하게 일어난 사례이다.

27.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 **더**(저) 네 아드^ㄴ를 어^ㄴ덜어늘(어질거늘) 내 아드리 비록 ㅁ **디**라도(말이라도) 王이 네 아드를 내^ㄴ티쇼셔(내치소서) - 『월인석보』 중에서 -
 - ㉡ 그^ㄴ디 살고 너^ㄴ가 죽으면 **저** 즈식을 키울 거슬 너^ㄴ가 살고 그^ㄴ디 죽어 **져**(저) 자식 엇^ㄴ지(어찌) 키잔 말고 익고 익고 **모진** 목숨 어린 자식 엇^ㄴ지홀ㄴ(어찌할까) - 『심청전』 중에서 -
- * () 안에는 해당 단어가 현대 국어와 다른 경우 현재의 표기 형태를 밝혀 준 것임.

- ① ㉠의 ‘더’와 ㉡의 ‘져’가 같은 단어이지만 형태가 다른 것으로 보아, ㉠이 ㉡보다 앞선 시대의 자료임을 알 수 있어.
- ② ㉠의 ‘더’, ‘덜’, ‘디’, ‘티’에서 ‘ㄷ’과 ‘ㅌ’이 ‘ㅣ’나 반모음 ‘ㅣ’ 앞에 오는 것으로 보아, 이 음절의 초성 ‘ㄷ’과 ‘ㅌ’이 당시에는 구개음이었음을 알 수 있군.
- ③ ㉡의 ‘져’, ‘지’, ‘진’에서 ‘ㅣ’나 반모음 ‘ㅣ’ 앞에 ‘ㄷ’이 나타나지 않고 ‘ㅈ’만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은 구개음화가 상당히 진척된 후의 자료로 추정할 수 있어.
- ④ ㉡의 ‘저’와 ‘져’는 같은 단어인데 그 형태가 다른 것으로 보아, ‘ㅈ’을 구개음으로 발음하게 되면서 구분되지 않고 사용된 사례로 볼 수 있어.
- ⑤ ㉠의 ‘어덜어늘’과 ㉡의 ‘모진’이 현재 ‘어질다’, ‘모질다’라는 기본형을 갖게 된 것으로 보아, 근대 국어에 나타난 구개음화 현상이 현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군.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들이 ‘자유’, ‘민주’, ‘평화’ 등과 같은 개념들을 사용할 때, 그 개념이 서로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자유’의 경우, ‘구속받지 않는 상태’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쓰이는가 하면, ‘자발성’이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러한 정의와 해석의 차이로 인해 개념에 대한 논란과 논쟁이 늘 있어 왔다. 바로 이러한 현상에 ㉠ 주목하여 출현한 것이 코젤렉의 ‘개념사’이다.

개념사를 역사학의 한 분과로 발전시킨 독일의 역사학자 코젤렉은 ‘개념은 실재의 지표이자 요소’라고 하였다. 이 말은 실태처럼 얽혀 있는 개념과 정치 사회적 실재, 개념과 역사적 실재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중요한 ㉡ 지침으로 작용한다. 그에 의하면 개념은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적 변화 등의 실재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동시에 개념은 정치 사회적 사건과 변화의 실제적 요소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근대화’ 개념을 통해 근대화라는 특정한 방향의 사회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근대화’ 개념은 사람들로 하여금 근대화라는 특정한 사회 변화의 목표에 맞게 사회를 변화시키게 하는 ㉢ 동인으로 작용한다.

개념은 정치적 사건과 사회적 변화 등에 직접 관련되어 있거나 그것을 기록, 해석하는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사용된다. 이러한 주체들, 즉 ‘역사 행위자’들이 사용하는 개념은 여러 의미가 포개어진 층을 이룬다. 개념사에서는 사회 역사적 현실과 관련하여 이러한 층들을 파헤치면서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가, 이 과정에서 그 의미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어떤 ㉣ 함의들이 거기에 투영되었는가, 그 개념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했는가 등에 대해 탐구한다.

또한 개념사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보다는 ‘어떤 개념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개념사에서는 과거의 역사 행위자가 자신이 경험한 ‘현재’를 서술할 때 사용한 개념과 오늘날의 입장에서 ‘과거’의 역사 서술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의 차이를 밝힌다. 그리고 과거의 역사를 현재의 역사로 번역하면서 양자가 어떻게 수렴될 수 있는가를 밝히는 절차를 밟는다.

이상에서 보듯이 개념사에서는 개념과 실재를 대조하고 과거와 현재의 개념을 대조함으로써, 그 개념이 대응하는 실재를 정확히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실재의 이해를 방해하고 더 나아가 ㉤ 왜곡하는가를 탐구한다. 이를 통해 코젤렉은 과거에 대한 ‘단 하나의 올바른 묘사’를 주장하는 근대 역사학의 방법을 비판하고, 과거의 역사 행위자가 구성한 역사적 실재와 현재 역사가가 만든 역사적 실재를 의미 있게 소통시키고자 했다.

28. 위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1점]

- ① 개념사의 연구 방법 ② 개념사가 갖는 한계
- ③ 개념사의 탐구 대상 ④ 개념사가 출현한 배경
- ⑤ 개념사에서 개념을 바라보는 관점

29.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핌.
- ② ㉡: 방법이나 방향을 인도하여 주는 준칙.
- ③ ㉢: 연관성이 먼, 간접적인 원인.
- ④ ㉣: 말이나 글 속에 어떠한 뜻이 들어 있음.
- ⑤ ㉤: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

30. 위 글을 읽고 난 후, <보기>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의리(義理)’나 ‘예(禮)’와 같은 개념들은 조선 시대에는 매우 중요한 정치 사회적 개념으로, 이를 둘러싼 정의와 해석의 차이로 인해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의리’와 ‘예’의 의미가 변화하였고, 그 정치 사회적 역할도 축소되었다.

- ① 개념사에서는 조선 시대와 오늘날의 ‘의리’와 ‘예’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를 밝히려 하겠군.
- ② 개념사에서는 조선 시대의 논쟁에 사용된 ‘의리’와 ‘예’에 대한 당대의 다양한 정의와 해석을 연구하려 하겠군.
- ③ 개념사에서는 조선 시대 사람들이 사용한 ‘의리’와 ‘예’의 개념에는 여러 의미가 포개어진 층을 이루고 있다고 여기겠군.
- ④ 개념사에서는 조선 시대에 사용된 ‘의리’와 ‘예’의 개념이 당시의 정치 사회적 실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군.
- ⑤ 개념사에서는 조선 시대와 ‘의리’와 ‘예’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의리’와 ‘예’ 개념을 한 가지 의미로 정리할 수 있다고 보겠군.

31. 위 글의 논지에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개념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한다.
 ㄴ. 개념은 역사적 실재 속에서 사회가 추구했던 목표를 배제한다.
 ㄷ. 개념사는 역사가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연구한다.
 ㄹ. 개념은 역사 속의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적 변화를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32~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번번히 못했던 손기는 동서시간인 소운성에게 모욕을 당하며 지내다가 도술을 깨우쳐 돌아온다. 그리고 신통력을 발휘하여 소운성을 제압하지만 소운성은 여전히 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소운성의 아들이 광대에게 혼을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한다.

소운성이 재촉하자 형 한림이 웃고 들어가 손기를 보고 말하였다.

[A] “옛날 인상여가 진나라 왕의 위엄에 목숨을 내걸고 항거하자, 그것을 본 같은 나라 신하 염과가 그 충정을 알고 그 동안 모함하였던 일을 사죄한다며 가시를 지고 잘못을 빈 일이 있었네. 이제 그대는 그러한 어려움도 없이 거만하고 오만한 사람이 저렇게 용서를 구하게 하는 것을 보니 그대의 위엄이 옛사람보다 더 낫구려.”

“동서의 어린 아들이 죽고 사는 일이니 가련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천하의 황제였던 한 무제도 그렇게 사랑하던 이 부인의 죽은 넋을 돌아오게 하지 못하였습니
[B] 다. 한데 어찌 저 같은 사람이 혼을 돌아오게 할 수단이 있겠습니까? 동서는 재주 있는 선비이니 시속의 운수를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모자란 저에게는 어찌할 특별한 방도가 없습니다.”

형 한림이 이 말을 듣고는 손기가 이미 다 헤아려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웃으며 말하였다.

“옛날 제나라 환공은 제후가 난을 만났을 때, 구하지 못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
[C] 였다네. 이제 저 광대가 하늘의 뜻을 거스르며 사람을 속였으니 만일 그대가 구하지 않는다면 어찌 환공에게 부끄럽지 않겠는가?”

“신선과 정인군자만이 귀신과 마귀를 항복시킬 수 있고,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만 사악한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요사스러운 인간이 기이한 도술을 펴니 무슨 방법으로 쫓을 수 있겠습니까?”

형 한림이 응대하려는 순간 갑자기 소운성이 뒷옷 왼쪽 어깨의 옷을 풀고 손에 대나무 한 쪽을 들고 밖에 이르렀다. 이는 옛날 후한 때 주발이 여씨 일족을 물리치기 위하여 군사를 일으키면서 같은 편이면 뒷옷 왼쪽 어깨의 옷을 풀라고 한 일을 본받은 것이다. 소운성이 애절하게 소리쳤다.

“큰 신선은 저의 애타게 근심하는 것을 구해주십시오.”

소운성이 말도 채 끝내지 않고 다시 절을 올리며 빌고 또 빌었다. 손기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하였으나 뜻하지 않게 소운성이 거만한 태도를 버리고 염파가 가시를 진 것처럼 지난 잘못을 빌며 간청하자, 작은 일에 엄매이지 않는 소운성의 기상이 마음에 들었다. 이에 슬쩍 웃으며 말하였다.

“전에는 그렇게 거만하게 굴더니 어찌 지금은 이토록 공경을 다하시는가?”

말을 마치고는 급히 나아가 예를 올리고 맞아들였다. 손기가 시녀에게 차를 내오라고 하자, 마음이 급한 소운성이 손사래를 쳤다. “차는 천천히 마셔도 됩니다. 제발 선생은 큰 술법을 베풀어 위태로운 목숨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의 도라는 것은 지극히 미묘하여 번거롭게 내세워서 안 되는 것이네. 내가 본래 자취를 감추어 세상 사람과는 서로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신중하지 못하여 아녀자를 통하여 말이 누설되었으니 이는 나의 잘못이라. 동서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킬 것이니 염려할 것 없네. 단지 잠시 운수가 좋지 않아 집안에 액운이 생긴 것이네. 동서의 둘째 아들은 오래 살고 복을 오래도록 누릴 아이니 분명 무사할 것이네. 이제 잠깐 평안히 앉아서 내가 일을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게.”

그러고는 즉시 철로 된 채찍을 들어 땅을 세 번 긋고 입으로 주문을 외우니 홀연 신령스러운 바람이 일어났다. 동시에 날이 어두워지며 붉은 안개가 끼더니 공중에서 갑옷으로 무장한 말 울음소리가 났다. 손기가 형 한림과 소운성을 돌아보며 외쳤다.

“두 사람은 잠깐 피하십시오.”

형 한림과 소운성이 문밖으로 나가서 몰래 안을 엿보니 안개 속에 한 신령이 머리에 푸른 두건을 쓰고 몸에 황금 갑옷을 입고 손에 큰 칼을 들고 서 있었다. 키는 팔 척이나 되었는데 붉은 얼굴에 봉황의 눈과 누에 눈썹을 가지고 있었고, 수염은 세 갈래로 나 있었다. 신령이 손기에게 몸을 굽히며 물었다.

“무슨 급한 일이 있기에 천사(天師)께서 소신을 부르신 것

입니까?”

손기가 화를 내며 큰소리로 명령하였다.

“옥황상제께서 그대에게 중국을 둘러싼 오랑캐를 복종시키고 송나라 조씨 사직을 뒷받침하여 도우라고 명하였으니, 그대의 소임이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한데 지금 어떤 요사한 인간이 허탄한 도술을 부리며 이곳에서 방자하게 구는데도 다스리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나는 그대가 모든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면서도 직분을 다하지 않은 것을 고약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제 그대는 급히 가서 소씨 집안의 어린 아들의 넋을 돌려보내고 요망한 놈을 잡아 소씨 집안으로 보내도록 하라.”

그 신령이 두 손을 모아 절을 하고는 거센 바람과 우레를 몰고 몸을 솟구쳐 공중으로 올라갔다. 형 한림과 소운성이 이 모습을 보고는 머리칼이 쭈뼛 곤두설 정도로 두려워 감히 숨을 쉬지 못하였다. 잠시 후 바람과 비가 그치고 날이 다시 밝아졌다. 손기가 소운성과 형 한림을 청하여 자리에 앉아 조용히 담소하였다. 시간이 얼마 흐르고서 손기가 소운성에게 말하였다.

“동서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게나. 어린 아들이 벌써 깨어났을 것이네.”

소운성이 이 말을 듣고 황망히 손을 올려 ㉠ 사의를 표하고 바빠 일어나 가려고 하자 손기가 인사가 지나치다고 사양하며 당부하였다.

“아이가 다행히도 요술에 목숨을 상하지 않았네. 그러나 동서도 광대의 목숨을 살려주고 엄하게 훈계하여 돌려보내면 이 또한 음덕이 될 것이네.”

- 작자 미상, 「영이록(靈異錄)」 -

32.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의 사건이 교차하면서 서술되고 있다.
- ④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인물을 평가하고 있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파악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보 기>

위 글에는 일종의 ‘문제 해결’ 과정이 나타나 있다. 이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 ㄱ. ‘손기’에게 모욕을 준 바 있는 ‘소운성’의 오만한 태도가 고쳐지지 않음.
- ㄴ. ‘소운성’의 아들이 요사스런 광대에게 혼을 빼앗김.

- ① ㄴ의 해결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형 한림’이 중재하고 있다.
- ② ‘소운성’이 ‘손기’를 ‘큰 신선’으로 지칭하고 ‘지난 잘못을 빌며 간청’하여, ‘손기’가 ‘소운성’을 맞아들이는 것은 ㄱ의 해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 ③ ‘손기’는 자신이 ㄴ을 해결할 수 있음을 자신하며, ‘소운성’을 안심시키고 있다.
- ④ ‘손기’가 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형 한림’과 ‘소운성’은 ‘손기’의 뛰어난 능력을 목격하고 있다.
- ⑤ ‘손기’는 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중에서 내려온 ‘신령’에게 ‘광대’를 잡아 자기 앞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하고 있다.

34. [A]~[C]에서 인물이 ‘고사’를 끌어들이는 방법을 <보기>에서 바르게 고른 것은?

<보 기>

ㄱ. 고사 속 인물과 비교하여 상대방을 치켜세운다.
 ㄴ. 고사 속 인물과 자신을 대조하여 겸손하게 거절한다.
 ㄷ. 고사 속 인물의 행적과 상대방의 행적이 유사함을 강조한다.
 ㄹ. 고사 속 인물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비교하며 울분을 표출한다.
 ㅁ. 고사 속 인물의 행적을 제시하여 상대방에게 그의 선행을 본받도록 유도한다.

- ① ㄱ, ㄴ, ㄹ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35. ‘소운성’이 ㉠의 상황에서 했음직한 말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을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덕분에 제 아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 ① 기사회생(起死回生) ② 노심초사(勞心焦思)
 ③ 동분서주(東奔西走) ④ 승승장구(乘勝長驅)
 ⑤ 일취월장(日就月將)

[36~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세기 초 미국의 천문학자인 슬라이퍼는 외부 은하의 별빛 스펙트럼을 연구하던 중 ‘적색 편이’ 현상을 발견하였다. 적색 편이란 외부 은하에서 온 별빛의 흡수선들이 적색 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일컫는다. 흡수선은 별빛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검은색 선을 가리킨다. 이 선은 별빛이 별의 대기를 통과하는 동안 대기 중의 원소에 특정 파장의 별빛이 흡수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흡수선의 유형이 같다면 그 별의 대기에 동일한 원소가 있는 것이다.

외부 은하에서 온 별빛의 스펙트럼에 적색 편이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시광선 내의 별빛 스펙트럼은 짧은 파장의 빛일수록 청색, 긴 파장의 빛일수록 적색을 띤다. 그리고 멀어져 가는 빛은 파장이 길어진다. 따라서 별이 지구의 관측 위치로부터 멀어지면 그 별로부터 오는 빛의 파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별빛 스펙트럼 내의 흡수선도 적색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다.

슬라이퍼가 발견한 이 현상은 은하들이 지구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였다. 이후 허블은 슬라이퍼의 발견을 확인하기 위해 24개의 은하에 대해 연구하였다. 허블은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편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바탕으로,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모든 은하가 서로 멀어지고 있음도 밝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우주의 팽창은 별까지의 거리 측정을 통해서도 입증될 수 있다. 거리 측정에는 맥동 변광성이 많이 활용된다. 맥동 변광성은 별의 내부 구조가 불안정하여 팽창과 수축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별을 가리킨다. 별은 팽창하면 밝아지고, 수축하면 어두워지므로 맥동 변광성의 밝기는 주기적으로 ㉠증감하게 된다.

맥동 변광성의 한 종류인 세페이드 변광성은 밝기 변화의 주기와 실제 밝기 사이에 일정한 비례 관계가 성립한다. ㉠ 밝기가 변화하는 주기가 긴 별은 실제 밝기가 밝고, 주기가 짧은 별은 실제 밝기가 어두운 것이다. 따라서 밝기가 변화하는 주기가 같은 두 개의 세페이드 변광성이 있다면 이 두 별의 실제 밝기는 같은 것이다. 실제 밝기가 같은 두 세페이드 변광성 중 어느 하나가 더 어둡게 보인다면 그 별은 관측자로부터 더 멀리 있는 것이다. 빛의 밝기는 별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밝기 변화의 주기가 같으나 4분의 1만큼 더 어둡게 보이는 세페이드 변광성이라면 두 배 더 멀리 있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여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결과를 축적해 왔다. 그 결과를 활용하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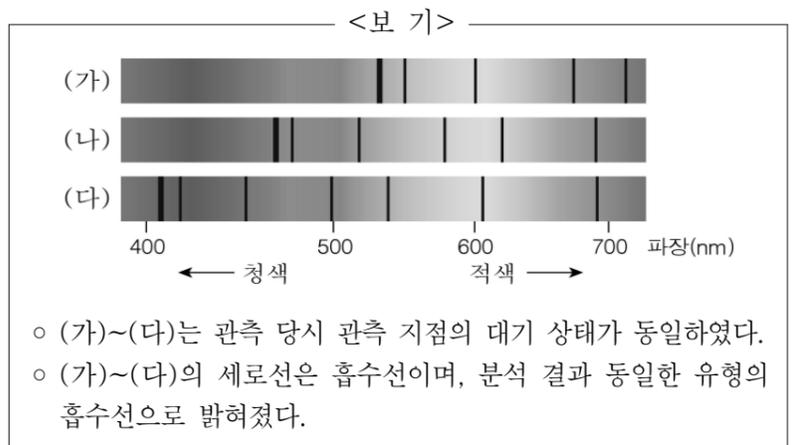
36.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빛의 밝기는 별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② 별빛 스펙트럼은 짧은 파장의 빛일수록 청색을 띤다.
 ③ 허블은 모든 은하가 서로 멀어지고 있는 것을 밝혔다.
 ④ 슬라이퍼는 우주 팽창의 원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적색 편이 현상을 발견했다.
 ⑤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우주 팽창을 입증할 수 있다.

37. ㉠은 대립되는 두 한자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말이다. 이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진 단어가 아닌 것은? [1점]

- ① 강건(剛健) ② 등락(騰落) ③ 시비(是非)
 ④ 장단(長短) ⑤ 호오(好惡)

38. <보기>는 세 개의 별에서 온 별빛의 스펙트럼이다. 위 글을 바탕으로 (가)~(다)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나)보다 먼 별에서 온 빛의 스펙트럼이다.
 ② (나)는 (다)보다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별로부터 온 빛의 스펙트럼이다.
 ③ (가)의 별빛이 (다)의 별빛보다 파장이 짧다.
 ④ (가), (나), (다)의 별빛이 온 각 별의 대기에는 동일한 원소가 존재한다.
 ⑤ 시간이 경과하면 (가), (나), (다)의 흡수선은 현재보다 더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될 것이다.

39. ㉠에서 추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세페이드 변광성은 별의 온도 변화와 관계없이 밝기 변화가 일정하다.
- ② 세페이드 변광성은 다른 변광성과의 거리에 따라 실제 밝기가 달라진다.
- ③ 세페이드 변광성은 별의 팽창과 수축 정도에 따라 실제 밝기가 달라진다.
- ④ 세페이드 변광성은 별의 내부 구조가 안정되어 있어 밝기 변화가 일정하다.
- ⑤ 세페이드 변광성은 실제 밝기가 같으면 거리에 따라 보이는 밝기도 동일하다.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태희는 낮에 강도가 침입한 이웃 경주네 집에서 경주 엄마와 함께 밤을 지낸다.

개업식은 오후 두 시였지만 그녀는 일찌감치 집을 비워두고 시내로 나갔다. 긴 겨울 방학에 이어 다시 봄 방학까지, 남편과 같이 있던 날들의 답답한 호흡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쳐버렸다는 것인가. ㉠ 남편의 출근이 시작되자마자 그녀 역시 바깥 세계로 나갈 작은 희망 사항을 하나 가슴에 품고 있던 중이었다. 그저 한가한 시내버스에 몸을 싣고 종점에서 종점까지 가 보든가, 새로 개장한 백화점에 들러본다든가. 그것도 아니면 근처 국민학교를 찾아가서 뛰어다니는 신입생들의 가슴에 매달린 흰 손수건이라도 쳐다보든가. 아이를 갖지 못한 여자에게 하루는 터무니없이 길었다. 게다가 아이를 갖지 못한 남편과 아내가 같이 보내는 하루는 그 얼마나 멀고 먼 모래밭인지.

㉡ “모두가 운이예요.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것만도 재수가 좋았다는 식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봐요, 이런 유의 가정 파괴범까지도 득시글거리는 세상인데.”

젊은 나이답지 않게 여자는 팔자소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상한 것은 재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보다 오히려 당한 쪽의 편에서 팔자에 대해 한층 너그럽다는 사실이었다.

남편이 그해 여름 느닷없이 증발되었을 때, 그리고 일주일 만에 멍든 육신으로 되돌아 왔을 때 태희는 경악과 분노로 차라리 손가락을 깨물고 싶은 심정이었다. 난 비교적 운이 좋았던 거야. 하기가 원래도 별다른 행동거지를 내보인 적도 없었고, 다들 들어갔다 하면 고장 난 몸뚱이로 일 년 이상 썩는 게 예사니까. 푸른 물감 통 속에서 갓 빠져나온 듯한 몸뚱어리를 이리저리 뒤척이며 때때로 낮은 신음을 뱉어가며 그는 자신의 몸을 신통한 기계나 내려다보듯 구석구석 확인하고 또 확인했었다. 그 스스로 확인했듯이 그는 결코 반골 기질 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었다.

“강도보다도 더 미운 것은, 이 아파트에 사는 우리들의 이웃이었어요. 목청이 터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았는지 번개처럼 복도 끝에서 끝으로 내달리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었지요……. 아무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여자의 호흡이 다시 거세졌다. 몸을 일으켜 내려다보니 ㉢ 여자는 불끈 권 주먹으로 허공을 때려눕히는 시늉을 하고 있었다. 어둠 속 여자의 주먹은 비어 있는 허공의 어디쯤에 한 움큼의 슬픔으로 떠 있는 유영체처럼 보였다.

㉣ 복도의 이쪽 끝과 저쪽 끝을 내달리는 사이 어린 딸이 흉악범의 비수 아래 놓여 있었다. 그의 칼끝을 피해 뒷걸음치다가 삼시간에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오긴 했지만 안에 남겨놓은 어린 생명에 대한 끝없는 불안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미친 듯이 203호를, 204호를, 205호를 두드렸다. 강도야! 내 딸이 죽을지도 몰라요. 206호를, 207호를 두들기며 또 소리쳤다. 강도야. 살인강도야. 도둑이야……. ㉤ 아파트 전체가 으레 공명판이 되어 핀 떨어지는 소리까지 수십 배 확대시켜 들려주었건만 절박한 여자의 비명은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다.

“난 분명히 들었어요. 내가 막 문을 두들기려던 209호였던 가요. 안에서 살그머니 문을 잠그더라구요. 그 순간 깨달았지요. 내 딸을 지킬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오직 나 하나뿐이라는 걸.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다시 집으로 뛰어 들어갔죠.”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아무도. 그것을 상상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을 수궁하는 일은 아무래도 쉽지 않았다. 외출에서 돌아왔을 때 여자가 보여준 그 불타는 적의를 태희는 완벽하게 이해했다. 모든 위험이 사라진 뒤 사람들은 그제야 알았다는 듯 우르르 쏟아져 나와 혀를 차고 위로하면서 집 안을 기웃거렸을 것이다. 203호의 현관문에서 대뜸 뛰어나왔어야 했던 그녀가 외출 중이었다는 사실을 그 순간 여자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은 무리였다.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끼쳐요. 난 분명히 보았어요. 현관문 저쪽에서 렌즈 구멍에 눈을 대고 허우적거리며 뛰어다니고 있는 내 모습을 구경하던 그들을, 나 또한 틀림없이 보아버린 기분 말이에요.”

여자가 이번엔 손가락 관절 하나하나를 푹푹 분질러냈다. 이어서 몇 개의 벽을 사이에 두고 긴 항해를 떠나는 배의 고동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두 번째의 커피. 남편은 여전히 책의 페이지 페이지를 넘기며, 행간마다의 의미 속으로 자진 출두해 들어가며 첫새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절벽이예요, 라고 여자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태희 역시 똑같은 말을 입속에 굴리고 있었다.

“커다란 절벽을 손으로 만지고, 활쫓고 두들겼던 거예요. 엄청난 두께와 측량 못 할 부피의 절벽…….”

무엇보다도 가장 큰 상처는 바로 그 절벽이 주는 것이었다. 태희는 여자가 깨달은 절벽을 향해 손을 뻗었다. 여자가 한숨을 쉬었다. 태희는 한숨조차도 쉴 수 없었다.

남편이 증발해버린 일주일 동안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불행을 다 떠올렸었다. 이 세상의 어떤 악운도 그녀를 놀라게 하거나 절망케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은 완전히 오산이었다. 결혼 후 두 달 만의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오 년이 되어가는 지금껏, 태희는 자신의 단순한 상상력을 향해 무수한 경멸을 거듭해왔다.

- 양귀자, 「밤의 일기」 -

40.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남편’을 대하는 ‘태희’의 심리 변화 과정이 나타나 있다.
- ② ‘여자’와 ‘남편’의 언행이 ‘태희’의 관점에서 해석되고 있다.
- ③ 장면에 따라 ‘여자’와 ‘태희’가 교대로 서술자가 되고 있다.
- ④ ‘태희’가 직접 겪었던 과거 사건이 서사 전개의 축이 되고 있다.
- ⑤ ‘여자’를 대하는 ‘태희’의 이중적 심리가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다.

4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태희'가 집을 비우고 시내에 나가게 된 심리적 배경에 해당한다.
- ② ㉡: 끔찍한 기억을 덮어 버리려는 '여자'의 심리에서 비롯한 말로 볼 수 있다.
- ③ ㉢: '여자'의 마음속에 내재된 분노와 슬픔을 표출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 ④ ㉣: '여자'가 처했던 절박한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 공간적 특성에 대한 '여자'와 '태희'의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 위 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42번과 43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 보 기 >

이 작품에서 작가는 폭력에 의해 나약한 개인들이 받게 되는 상처를 보여 주는 한편, 폭력을 외면하는 이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낸다. 또한 부조리한 폭력이 작동하는 기제를 탐색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작가는 우리의 삶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사건들을 구조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42.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단서를 위 글에서 찾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자'가 경험한 사건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나열한다.
- ② '여자'가 들려주는 폭력의 아픔을 '태희'를 매개로 '남편'에게 전달한다.
- ③ '태희'의 '아이'에 대한 소망을, '여자'의 폭력에 맞서는 모성을 통해 부각시킨다.
- ④ '여자'가 경험한 사건과 '남편'이 경험한 사건을 병치하여 문제 상황을 드러낸다.
- ⑤ '단순한 상상력'에 대한 '태희'의 태도를, '어린 딸'에 대한 '여자'의 태도와 일치시킨다.

43.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고통을 겪는 '여자'와 함께 있어 주는 '태희'의 태도는 폭력의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암시하는 것 같아.
- ② '반골 기질 같은 것'은 갖고 있지도 않은 '남편'이 '느닷없이 증발되었'던 것은 부조리한 폭력이 발동하는 현실의 상황을 암시하는 것 같아.
- ③ '여자'가 '손가락 관절 하나하나를 푹푹 분질러'대는 것은 폭력의 결과가 새로운 폭력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 ④ '그것을 수궁하는 일은 아무래도 쉽지 않았다'는 '태희'의 말은 폭력을 외면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 같아.
- ⑤ '커다란 절벽'으로 비유되는 사회 구성원들의 외면과 침묵이 폭력의 작동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

[44~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상무와 비서가 일하는 백화점 유실물 관리실에 대기업의 총수인 노파가 유실물을 찾고 싶다며 찾아온다. 노파는 유실물로 들어온 꽃다발의 향기를 우연히 맡게 된다.

노파: 이거야, 이거.

노파 또 한 번 꽃의 향기를 맡는다.

상무: ㉠ 나, 참!

비서: 할머니, 이제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무: 난 벌써 알고 있었어. 미쳤다니까.

비서: 할머니가 찾은 것은 그 꽃이 아니라 꽃의 향기예요.

상무: 향기?

노파: 그래, 향기.

노파는 꽃다발을 책상 위에 놓고 가방에서 수건을 꺼내어 눈물을 닦는다. 비서가 노파 쪽으로 가 손을 잡는다.

비서: 할머니, 아까는 걸레가 많았어요.

노파: 응? 괜찮다. 괜히 찾았구나. 마음이 더 허전하다. 아까 색시가 애기했지? 잃은 물건도 찾아야 할 것이 있고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 있다고. 나는 일생을 향기를 잃고 헤매었구나. 그러나 막상 찾아보니 이미 늦었어. 이렇게 되면 잃은 물건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사람은 반쪽만 가지고 만족해야 하나봐. 완전한 것을 바라는 것은 허무한 일인가 봐. 자, 가볼까. 내 비서 놈들은 어디를 싸다니지? (입구 쪽으로 가다가 돌아서더니 가방을 뒤척이며 수포 한 장을 꺼낸다.) 여기 또 한 가지가 있어.

비서: 또 한 가지요?

노파: 잃고 싶은 물건이 있어. 그러나 ㉡ 다시 찾을 생각은 조금도, 없다. 자, 수포다.

비서: 수포요?

노파: 돈이란 말이다. 갑자기 잃고 싶구나. 받아 뒤라. 꽃의 향기를 사려면 이만 한 돈이 있어야 한다.

(중략)

상무: 꽃 냄새. 냄새가 좋은데. 이상하지? 생각이 한꺼번에 떠올라.

비서: 무슨 생각인데요?

상무: 어릴 때 동네 뒷산에 올라가 친구들과 매미를 잡던 일..... 냇가에서 송사리를 몰던 일..... 눈 속에서 뒹굴며 놀던 일..... (갑자기 일어나며) 쟤장!

비서: 왜요?

상무: 빌어먹게 마누라의 얼굴이 떠올라! 나 참! 아, 우리 집에 전화를 걸었나?

비서: 아뇨 틈이 없었어요. 지금 걸지요.

상무: ㉢ 그만 뒤! 내가 걸게. (상무가 책상 쪽에 와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아, 나야, 나, 뭣이? 나란 말이야! 아니, 무슨 여편네가 남편의 목소리도 몰라봐? 뭐라구? 전화를 통해 내 말을 듣는 건 생전 처음이라구? 그런가? 참말이야, 나란 말이야! 뭣이? 나 참! (수화기를 세차게 놓는다) 날더러 미쳤대. 아, 그럴수도 있잖아? 회사 일이 바쁘데 전화를 걸 틈이 어디 있어? 10년이 됐군. 집에 전화를 걸어본 지도 흠!

상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 그의

뒷모습을 보다가 비서는 장부를 펼친다. 문이 열리며 점원이 들어온다.

점원: ㉠ 아까 그 할머니는 어디 갔죠?

비서: 나갔어.

점원: 어디로요?

비서: 몰라.

점원: 찾아야 해요. 비서들이 야단이에요. 비서님은 그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모르지요?

비서: 몰라.

점원: 핑장한 분이예요. 빨리 찾으십시오.

비서: 나 일이 바빠.

점원: 아니, 비서님은 물건을 찾아주는 사람이 아니예요? 나 참!

점원이 혀를 차며 나간다. 이어 상무가 가방을 들고 황급히 나와 전화를 건다.

상무: 나야 이제 알겠어? 고맙군. 나 이제 집으로 갈 참이야. 응, 회장님을 만나고 사표를 내기로 했어. 너무 바쁘니까. 그래, 곧. 왜 이래? 왜 우는 거야? 뿔이 사표를 낸다는데.....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기뻐서 울어? 나 참! 울지 마! 울지 말라니까! (수화기를 놓고) 재수 없게 울고 있어! 여자란 참!

비서: ㉡ 사표를 내요?

상무: 응, 하마터면 잇을 뻔했군. 수고가 많았어. 참, 꽃방이 어디 있어?

비서: 이 백화점 지하실에도 있어요.

상무: (책상에 있는 꽃을 보고) 이만한 꽃다발을 사려면 돈이 얼마나 들지?

비서: 한..... 500원쯤.

상무: 그렇게 싼가? 그럼.....

상무가 뛰어나간다. 그의 뒷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비서는 책상 한 모퉁이에 있는 수표를 든다. 잠시 망설이다가 잘게 찢는다. 손바닥에 찢은 조각을 놓고 후 붙여 버린다. 수표 조각이 마루에 흩어진다. 이어 장부를 보며 전화를 건다.

비서: 안녕하세요? 신용과 상품의 질을 생명으로 하는 신대륙 백화점 유실물 관리실입니다. 댁에서 신고한 유실물을 찾았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 [A]다. 도장하고 시민증을 갖고 나오시면 됩니다.

서서히 막이 내린다.

- 이근삼, 「유실물」 -

44. 연출자가 ㉠~㉡에 대해 연기를 지시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무'는 ㉠을 말할 때 표정과 말투를 통해 어이없어하는 반응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 ② '노파'는 ㉡을 말하면서 '비서'에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수표를 내 주어야 합니다.
- ③ '상무'는 불안하고 초조한 심리 상태를 내보이며 '비서'를 향해 ㉡을 말해야 합니다.
- ④ '점원'은 '비서'에게 다급한 어투로 ㉡을 말해야 합니다.
- ⑤ '비서'는 ㉡을 말할 때 '상무'를 바라보며 의아해하는 심정을 드러내야 합니다.

※ <보기>는 위 작품에 대한 평론의 일부이다. 위 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45번과 4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 <보 기> —

작가는 이 작품에서 욕망에 얽매어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현대인의 정신적 불구 현상에 주목한다. 현대인은 인간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가치의 전도 현상으로 자기 상실과 관계의 단절을 겪고 있다. 작가는 관객들이 이러한 현대인의 삶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삶의 가치에 대한 깨달음뿐 아니라 자기 상실과 관계의 단절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모습도 보여 줌으로써 관객들에게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5. 위 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온 '상무'의 지난 삶은, '정신적 불구'자로서의 현대인의 삶을 표상한다고 볼 수 있어.
- ② '노파'와 '상무'에게 깨달음의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꽃의 향기'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③ '상무'의 아내가 흘리는 기쁨의 눈물은, 단절되었던 가족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 ④ '수표'를 찢어 버리는 '비서'의 행위는, 물질적인 가치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한 방법임을 알려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어.
- ⑤ '노파'가 '꽃의 향기'를 접하고 느끼는 허전함은, 물질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느라 허비한 세월에 대한 아쉬움이라 할 수 있어.

46. [A]가 관객을 향해 한 말이라고 할 때, 그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유도한다.
- ②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③ 인물들의 어리석은 면을 환기시켜 희극적 재미를 준다.
- ④ 인물 간의 갈등이 완전하게 해소되었음을 알려 준다.
- ⑤ 진정한 가치의 회복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보여 준다.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당신이 누군가에게 사과를 받는다면 1년 후에 한 개를 받았는가, 그 다음 날 두 개를 받았는가? 그리고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오늘 사과 한 개를 받는 경우와 내일 사과 두 개를 받는 경우 중 하나를 고르라면 어느 것을 선택하겠는가? 행동경제학자 탈러가 이 두 질문으로 실험을 실시했을 때, 실험의 참가자들은 첫 번째 질문에서 대부분 사과 두 개를 선택하였는데, 이렇게 선택했던 사람들 상당수가 두 번째 질문에서는 당장의 사과 한 개를 선택하였다.

(나) 사람들이 1년 후에 사과 한 개를 받는 것보다 1년 1일 후에 사과 두 개를 받는 것을 선호한 이유는 ㉠ 장래의 작은 이익의 효용보다 ㉡ 장래의 큰 이익의 효용이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래의 이익이 현실이 되는 시점이 다가오면 그 효용의 크기가 역전된다. 이는 사람들의 선호가 항상 일정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경과와 함께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탈러는 이 실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관성이 결여된 대답을 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따져 보고 일관된 선택을 할 것이라는 기존 경제학의 관점과 달리, 탈리는 일관되지 않은 선택이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탈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일관되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미래의 선택지 하나를 없애버리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자기 결박적 약속’이라고 한다.

(다) 자기 결박적 약속은 너무나 좋아서 거절할 수 없는 ‘당근’이나 너무 나빠서 받아들일 수 없는 ‘채찍’을 주고 선택의 여지를 줄이거나 없애서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이다. 저축을 하면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줄 알면서 선택의 시점이 되면 소비 지출이 주는 당장의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고 해 보자. 이런 사람에게는 만기까지 저축을 유지하면 약속된 금리에 큰 폭의 추가 금리를 주거나, 중도에 저축 상품을 해약했을 때 상당 금액을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

(라) 물론 기존 경제학의 관점에서 당근과 채찍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불합리한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채찍을 써서 억제하고, 합리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당근을 써서 이를 부추긴다. 이에 비해 행동경제학자들은 놓치기에 너무나 가까운 당근이나 지나치게 가혹한 채찍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기존의 유인은 비일관적 선호를 보이는 사람들이 현재에 집중된 조급함을 극복하도록 할 만큼 충분히 강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 이와 더불어 행동경제학자들은 기존의 ‘유인’과 구별되는 개념인 ‘반대 유인’을 제안했다. 기존의 유인 개념은 A를 선택하게 하기 위해 A에 관한 당근이나 채찍을 거는 것이었다. 하지만 반대 유인에서는 A를 선택하게 하기 위해 A와 상반되는 성격의 B에 대해 당근이나 채찍을 거는 것이다. 강력한 당근이나 채찍으로 A에 대한 반대 유인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그 당근이나 채찍을 거부하면서 B가 아닌 A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반대 유인은 정부나 기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47.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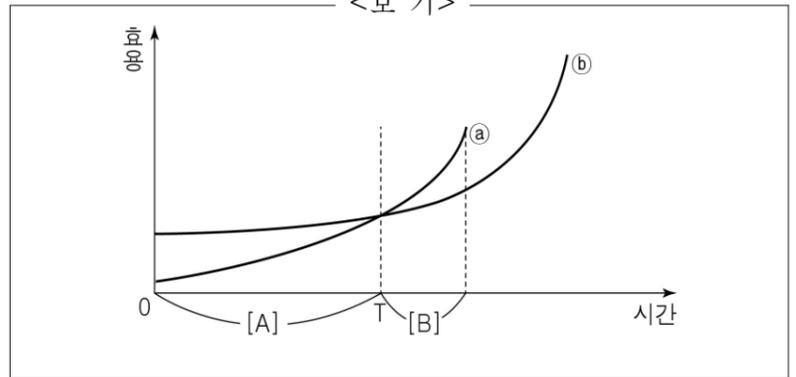
- ① (가): 특정 현상에 주목한 탈리의 실험을 소개하고 있다.
- ② (나): (가)의 실험에 대한 탈리의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③ (다): (나)에서 언급한 자기 결박적 약속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④ (라): (다)에서 설명한 자기 결박적 약속과 기존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⑤ (마): (라)에 이어 행동경제학자들이 제안한 유인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48. 위 글의 단어 중, <보기>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1점]

<보 기>
전체에서 한 부분을 덜어 내다.

- ① 선택 ② 역전 ③ 결여 ④ 공제 ⑤ 부과

49. <보기>는 위 글의 ㉠과 ㉡에 대한 설명을 도식화한 것이다. <보기>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에서는 ㉠의 효용의 크기가 ㉡의 효용의 크기보다 작다.
- ② T부터 ㉠의 효용과 ㉡의 효용의 크기가 뒤바뀐다.
- ③ [A]에서 ㉡를 선택한 사람의 상당수가 [B]에서 ㉠을 선택한다.
- ④ ㉠과 ㉡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는 시간의 경과에 비례하여 커진다.
- ⑤ [B]에서 ㉠과 ㉡의 효용의 크기 차이는 장래의 이익이 현실이 되는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더 커진다.

50. 위 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비슷한 조건의 ㄱ 회사와 ㄴ 회사는 신입사원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ㄱ 회사는 신입사원의 입사 교육 기간이 끝날 때 1년 내 퇴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30만 원의 보너스를 주기로 했다. 이와 달리 ㄴ 회사는 교육 직후 퇴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급여에 300만 원을 더 주기로 했다. 그런데 ㄴ 회사가 ㄱ 회사보다 신입사원 이직률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회사의 생산성과 매출 및 이익률에서도 월등히 앞서게 되었다.

- ① ㄱ 회사는 ‘30만 원’으로 신입사원들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 하나를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군.
- ② ㄱ 회사가 전통적인 방식의 ‘유인’을 제시한 반면, ㄴ 회사는 ‘반대 유인’을 제시했군.
- ③ ㄴ 회사 신입사원들의 이직률이 낮아진 것은 300만 원의 금액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겠군.
- ④ ㄱ 회사가 마련한 대책은 신입사원이 일관된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임을 전제하고 있군.
- ⑤ ㄱ 회사는 신입사원들에게 채찍을 제시한 반면, ㄴ 회사는 당근을 제시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